

드라마 제작사 임원 출신 민간사업자가 말하는 '사상의학 체험랜드' 진실은?

“처음부터 세트장 짓기로 전남도·장흥군과 합의”

“세트장 건립·제작 지원에 48억원 써...날림공사 아니다”

보조금 의도적 전용 가능성...전남경찰, 관련자 소환키로

보조금 전용 의혹(광주일보 28·29일 6면)이 제기된 '장흥 사상의학 체험랜드' 사업에 참여했던 민간사업자 2명은 고(故) 김종학 감독과 관련된 드라마 제작사 임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후기 사상의학의 창시자 이제마 선생을 내세워 사상의학 체험시설을 갖추는데 쓰기로 했던 국비와 군비 48억원 전액이 전남도·장흥군의 주도 아래 드라마 '신의' 세트장 건립과 제작지원에 투입됐다는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다.

29일 광주일보 취재결과 문화체육관광

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전남도와 장흥군이 천관산 자락에 건립한 사상의학 체험랜드에 참여했던 민간사업자 2명은 김종학 감독이 운영했던 제작사 임원 A씨와 또 다른 기획사 대표 B씨로 확인됐다.

예초 지난 2007년 정부 공모사업 선정 당시 전남도와 장흥군은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장흥군이 직접 운영하기로 했으나, 부지매입 비용과 추후 시설 운영 경비 부담 등을 이유로 임의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였다. 사업 초기 순차적으로 참여했던 민간사업자 C와 D씨는 '체험랜드 조성사업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갔다. 이후 사업 부지(2만186㎡·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61번지 일원)는 전남도와 장흥군과 드라마 '신의' 제작 업무 협약(MOU)을 맺은 김종학 감독과 관련된 기획사 대표 B씨, 김종학 감독의 회사 임원 A씨가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갔다.

전남도와 장흥군이 약초탕, 찜질방, 한방 진료관 등 시설과 한방 장비를 갖춰야 할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에 써야 했던 국비와 군비를 드라마 제작 지원에 의도적으로 전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는 "전남도와 장흥군은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 사업이라고 말하겠지만, 그건

드라마 신의 제작을 위한 세트장"이라며 "드라마 세트장 건립과 제작 지원에 전남도와 장흥군이 최소 40~50억원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시설은 날림공사가 아니라 제대로 지어진 드라마 세트장이다. 처음부터 드라마 세트장을 짓기로 전남도·장흥군과 합의했고, 관련 계약서, 녹취·동영상 자료도 모두 갖고 있다"면서 "외진 곳에 사상의학 체험관 만들면 누가 오겠나"라며 전남도와 장흥군이 끌어들여 놓고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더니 이제 와서 수사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도 말했다.

드라마 세트장으로 잠시 사용한 뒤 본래 목적에 맞게 시설을 보완, 사상의학 체험랜드로 활용할 계획이었다는 장흥

군의 주장과 달리 전남도와 장흥군이 국비와 군비 48억원 전체를 드라마 제작에 쏟아부었다는 것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관련법과 매뉴얼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시엔 무엇보다 사상의학 체험랜드의 성공을 위한다는 마음 밖에 없었다"면서 "드라마 신의가 성공해서 장흥군과 사상의학 체험랜드가 모두 성공할 줄 알았지, 드라마 흥행 실패로 김감독이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사의뢰를 받은 전남지방경찰청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국비 보조금 전용 의혹에 관련된 전남도, 장흥군 공무원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학비리 이홍하씨 항소심

징역 9년·벌금 90억 선고

9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94억원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횡령한 금액이 10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만도 120억원이 넘는다는"며 "특히 자녀의 아파트·차량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교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로 인해 일부 대학과 병원의 재정이 악화됐고, 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대학의 재정을 사용하는 등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1심은 이씨에 대한 909억원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병중 군수 항소심도 무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병중 고흥군수에 대한 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 공보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실적을 기재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수상 당시 박 군수가 상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장 선거 브로커 60대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9일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시장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유사단체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선거브로커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또 다른 혐의인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구속기간을 감안, A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갈미수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59)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어·취업 강요 교육 반발 대학생

오늘 토익 책 불태우기 '분서 파티'

(焚書)

'글커잉' 미응시 처리 대응

전남대생 10여명 이색시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의 강제성과 취업만을 강요하는 대학 교육을 불태우겠다."

강제성이 있는 모의 토익시험을 치르지 말자'라며 백지 제출 투쟁을 진행해온 전남대 학생들(광주일보 6월2일 7면)이 교내에서 토익책을 불태우는 시위를 진행했다.

전남대 학생들로 구성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이하 글커잉)를 거부하는 학생모임'은 30일 낮 12시 인문대 벤치에서 '글커잉을 불태우는 분서(焚書)파티'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10여명의 재학생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토익책 등을 불태워 고기를 구워 먹을 예정"이라며 "장소는 대학측이 설치한 '우리의 교육자료' 선인 기념조형물이 있는 인문대 앞"이라고 말했다.

'분서파티'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불태울 토익책을 가져오는 학생들에게는 고기를 공짜로 제공하고, 미지참 학생들에게는 입장료 1000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시위는 올해 2학기부터 '글커잉' 백지 답안지 제출자를 '미응

시'로 처리하겠다는 대학본부의 결정에 대한 반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전남대는 2014년 이후 신입생들의 토익성적을 향상시켜 취업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글커잉'을 필수교양과목으로 지정, 이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할 수 없게 했다.

또 2년간 4회의 모의 토익시험에서 얻은 가장 높은 점수를 학점으로 계산, ▲750점 이상 받는 학생들은 A+ 학점을, ▲700점 이상~750점 미만 A ▲600점 이상~700점 미만 B+ ▲500점 이상~600점 미만 B ▲500점 미만 C+ 등으로 학점을 줬다.

단, 4회의 모의 토익시험에 모두 응시하면 최고점의 100%, 3회 95%, 2회 90%, 0~1회 0%의 점수를 적용해 그동안은 백지 답안지를 제출하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부터 '수강 선택권도 없이 글커잉을 선택제로 전환하라'며 백지 투쟁과 함께 1인 피켓시위, 인권위 진정 등을 제기해 왔다.

철학과 장미(여·22)씨는 "백지 제출은 미응시 아닌 0점이다"며 "글커잉을 선택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공공비축미 첫 수매 올해 첫 공공비축미 수매가 진행된 29일 오전 영광군 군남면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벼를 매입하기 위해 낱알의 품질을 확인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는 품질이 좋아 특등급이 지난해에 비해 20~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버지 사망 숨기고 18년간 연금 부정수급

국가유공자였던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18년간 수역원의 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담당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연금 관리가 부정수급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7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 1억

8200만원과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군인연금 2억81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김씨는 또 사망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1998년 9월부터 지난 2007년 5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900여만원을 대출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6·25 전쟁에 참전해 중상을 입고 1967년 6월 대위로 전역한 김씨의 아버지(1928년생)에게는 1997년 1월부터 올해 기준으로 매달 군인연금 166만원, 보훈급여 121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김씨의 아버지는 연금 수령 시작 9개월 뒤인 1997년 9월 폐질환으로 숨졌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챙긴 부부



○가족이나 사회 선 후배들을 모집해 광주·전남 일대를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받아 가뭄엔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서행.

○2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7)씨 등 25명은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광주·전남 일대를 돌며 일부러 차량 접촉사고를 내거나,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보험금 3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이들은 부부, 사회 선후배 등으로 운전자와 탑승자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김씨 등은 생활비와 유희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투데이 옥션

부동산판매 추천물건

- 광주 남구 주월동 단층건물 대지 남구에서 봉선동 방향 대로변 대지로써 상권우수 신축 건물 부지로 적합, 대지 684㎡, 감정가 16억 8천, 최저가 16억 8천
- 광주 북구 두암동 상가건물 대로변접 투자가치 좋음 지하 1층 ~ 지상 4층 대지 386㎡ 건물 1132㎡, 감정가 10억, 최저가 7억 3천
- 광주 남구 서동 근린상가 새미래 병원 인근에 위치 도로접 지하 1층 ~ 지상 3층 대지 119㎡ 건물 274㎡, 감정가 3억 6천, 최저가 2억 5천
- 광주 북구 유동 상가건물 대로변 위치 아파트 재개발 지역인근 대지 796㎡ 건물 2704㎡ 지하 1층 ~ 지상 5층 감정가 24억 3천, 최저가 17억
- 광주 남구 주월동 상업지역 대지 백운 광장 인근 대로변접 건물 신축 부지 적합 대지 167㎡, 감정가 15억 5천, 최저가 10억

경공매전문가 이현석 010-9963-6345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축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유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입/현대스위스/삼화/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 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 전문 기업입니다.

법원경매 낙찰대리,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투자 컨설팅 등을 원 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입니다.

추천물건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장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 광주지역 외 추천물건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

NPL 질권대출 · NPL 매입, 매각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거당권부 질권대출, 경락잔금 전문)

• 전국최저금리!!! 전국최고 한도 • NPL 잔금 5.2% ~ 5.9% • 중도상환 無

유한회사 수호부동산 중개법인 담당자 이수진 이 사 010-2170-3034 김태훈 본부장 010-4557-3034

사업자등록번호 464-88-00084 법인등록번호 200114-0058676